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원안대로 의결

회원사 경영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터

본회는 지난 2월 23일 지하 대회의실에서 31개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금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상정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올해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추경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이사회에 위임키로 했다.

금년도 예산은 회원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운 관계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33억 5,800만원으로 건측예산을 편성하였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조남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 취임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과 없이 한해를 보냈음을 감사드린다”고 말한 후 “금년에는 우리 회원사의 권익증진과 경영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가 추진할 금년도 주요 사업목표는 ‘축산업과 사료산업의 체질향상을 통해 국민 식량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이바지하고 회원사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서비스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협회의 업무 역량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기본방향 설정은 △우리의 축산업과 사료산업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데 회원사 지원기능 강화 △회원사 및 업계의 공동이익 실현을 위한 금융·세제·법령 등 관련 제도의 발전적 개선 추진 △원료의 경제적·안정적 확보를 위한 구매시스템의 보완 △사료 생산비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방안 강구 △사료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안전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기능 강화 △회원사 경영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애로사항 해결로 정해놓고 협회 차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로 했다. ☐

